

조기경보기 4대 구매
프랑스, 옵션방식으로
두번에

프랑스 해군은 노드롭그라만사의 E-2C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구입하여 Charles de Gaulle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2C 4대중 2대분의 도입예산은 1995년도 프랑스 국방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 2대분의 도입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DGA 군비국은 미국 제작사와 프랑스 회사간에 Offset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주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DGA는 엔진을 제외한 E-2C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대응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해군이 4대 도입키로한 노드롭그라만사의 E-2C HAWK EYE 공중조기경보기. 한국공군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대응구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랑스 항공우주공업회(GIFAS)와 군수 무역단체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E-2C Offset계약 담당회사인 SEII사를 설립했다. SEII사는 적은 규모의 회사라도 Offset계약에 따른 물량배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arles De Gaulle 항공모함은 1999년에 취항할 예정인데 Dassault사의 라파엘 다목적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그외에 프랑스 해군은 90년대말에 항공모함 1척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프랑스 산업계는 1987년에 프랑스 공군이 구입한 보잉사의 E-3F에서도 Offset 계약을 체결하여 8년동안 수출하였다. GIFAS

측에 따르면 미국-프랑스간 AWACS Offset 계약은 1993년 7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프랑스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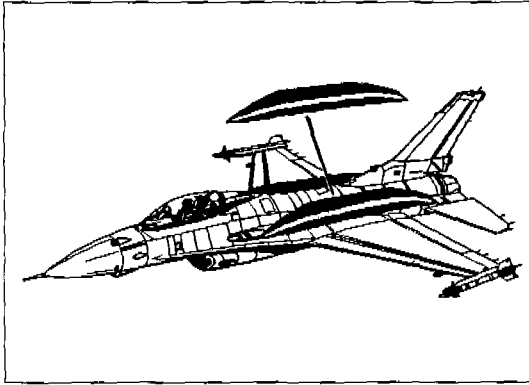
조시들은 E-3F에 장착된 CFM56 터보팬 엔진을 제외하고도 약 3억5,300만 달러의 영업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항속거리 40% 연장
F-16ES 개조형
F-15와 경쟁

록히드사는 군수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D의 F-15E에 대항하기 위해 F-16 전투기의 개량형을 생산할 예정이다. F-16ES의 주된 변경사항은 24ft 길이의 연료탱크 두개를 날개와 동체의 접합부에 설치하여 총 3,200lb의 연료를 추가로 탑재하는 것이다.

기존의 중앙탱크(320갤론)와 날개하부탱크(600갤론 2개)에 연료를 탑재하고 개량 연료탱크에 추가연료를 탑재할 경우 2,000lb 폭탄 2개와 공대공 미사일 4기를 장착하고 1,025마일 내에서 재급유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F-16C에 비해 항속거리가 약 40% 증가된 것으로 F-15의 항속거리와 비슷하다.

연료탱크에 추가하여 F-16ES에서는 랜턴 전방적외선장치(FLIR)를 구비하고 있다.



기존 F-16C의 날개와 동체 사이에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하여 항속거리를 40% 향상시킨 F-16ES형, F-15E전투기의 항속거리와 비슷하다.

F-16ES 개조는 현존 전투기의 개조를 위한 KIT형태와 신제기에 적용된다.

이것은 록히드가 보잉사와 합작으로 제조한 F-22와 함께 양다리를 걸치려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즉 F-22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국방성에서 총 구매대수를 대폭 줄일 경우 미 공군은 F-16ES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F-15ES의 대당 가격은 2,5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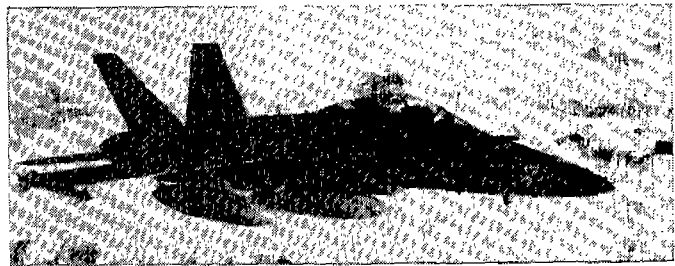
15년간 110억\$ 절감

캐나다, 국방예산 대폭 조정

캐나다는 앞으로 15년동안 국방장비 예산을 현재의 1/3수준으

이다.

결국 캐나다 공군의 항공기 구매 및 지원비용이 25% 이상 감소할 예정인데 공군측은 이를 위해 노드롭사의 CF-5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MD사의 CF-18 호넷 전투기를 72대에서 48대지 60대로 줄이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캐나다는 군비축소 계획에 따라 CF-5는 퇴역하고(하), CF-18 Hornet 전투기는 운용대수를 줄이기로 했다(상)



로 줄이기로 했다고 국방백서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5년 동안 국방 구매비용을 110억 달러로 줄인다는 것

또한 이같은 항공기 비행시간의 감축과 함께 대체항공기의 구매를 2000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CF-5 전투기의 대체기는 CT-114 Tutor와 CF-18B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국방백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CH-13 Labrador 탐사 및 구조 헬리콥터의 대체기종을 찾아야 하며, CF-18 전투기에 장착될 정밀유도 무기를 소량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에어버스사의 A310 귀빈용 항공기를 개조하여 전략수송과 화물기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해군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콜스키사의 CH-124A/B Sea King의 대체용 신형 함재 헬리콥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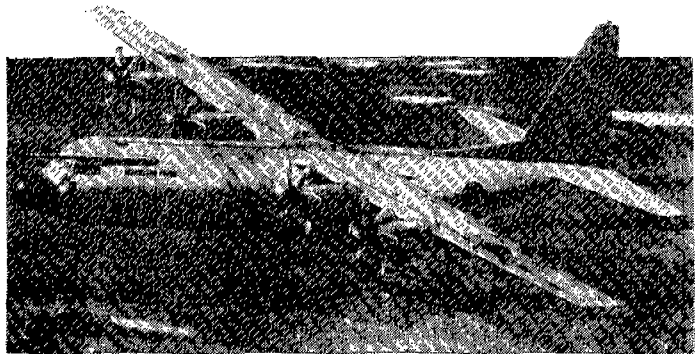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abrador와 Sea King은 EH Industries사의 EH101 헬리콥터로 대체될 예정이었으나 주문이 취소된 상태이다. 국방부는 단일 기종을 도입하여 함재기와 조난 구조용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나, 사실 조난구조 용에 대해서는 별도타입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NATO와 북유럽항공방위 시스템에 캐나다의 참여를 재확인했으나 그 수준을 낮추었고 UN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수송능력 증강계획 UK, C-130J 25대 구매키로 결정

영국 국방부는 공군의 C-130K 수송기 대체사업중 첫단계로 록히드사의 C-130J 25대를 구매키로 결정했다. 이와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하면서 Malcom Rifkind 국방장관은 영국이 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FLA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FLA가 긴급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Hercules 기단의 대체수요와 다른 항공수송 수요에 충분히 대처



영국이 최초 주문한 C-130J 수송기, 총 25대가 도입되어 C-130K 형과 대체된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물량은 40~50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C-130J 수송기의 도입결정은 구형 항공기를 교체하기 위한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C-130J 항공기의 도입과 관련한 Offset 계약은 록히드사가 영국 회사에 100%의 Offset 물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매사업은 신형 공격헬리콥터, 해상초계기(록히드의 P-3 Orion 유력), 수송 헬기,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선정 임박

인도네시아,
F-5 성능개량사업자

인도네시아 F-5E/F 전투기 12대의 성능개량 System Integrator(Smith Industries와 벨기에의 SABCA사가 경합중)의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천만달러가 소요되는 동 사업에는 1553B 디지털 데이터버스에 맞는 전자부품의 설치와 AIM-9L Sidewinder 공대공 미사일 장착을 위한 재배선 및 약간의 기체구조 수리가 포함된다.

계획된 성능개량으로는 Hand-on-Throttle-and-stick 조종실, 전방시현장치, 관성항법장치, 레이더경보수신기(RWR) 및 air data 컴퓨터의 탑재가 포함된다.

이번 개량사업에는 국영 항공기제작사인 IPTN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